

100만원 이상 금품, 배우자가 받아도 처벌

■ '김영란 법' 주요 내용

공직자·언론인·사립교원 포함...내년 10월 시행 年 300만원 넘어도 처벌...100만원 이하 2~5배 과태료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은 '스폰서 검사'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적용 대상도 상당히 광범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포괄적 성격의 비리 차단 법안이다.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부조건 행사 처벌을 받는다.

한 차례 받는 금품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도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대가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그 액수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법원에서 부과하게 된다. 이 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최초 정부안에는 공직자만 적용 대상

으로 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른바 공공성과 형평성을 명분으로 언론사와 사학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이 포함됐다. 그 대신 정부안에서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넓혀놓았던 것을 '배우자'로만 한정했다.

정부는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3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간접적인 영향권에는 사실상 우리 국민 대부분이 들어갈 전망이다.

법안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대신 가족의 신고 의무는 유지했다. 따라서 부인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것을 알게 된 공직자는 부인을 신고해야만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지 않는다.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를 나중에 반환·인도하거나 받을 때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조사를 거쳐 처

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직업무 특성을 감안해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15개 조항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조례와 규칙, 공공기관의 규정, 사규 등의 '기존 위반' 행위는 제외하고 '법령 위반'만 부정청탁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의 유형은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의 감경, 공직자 인사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탈,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이 해당된다. 누구든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U대회 성공개최” 손 잡은 광주-서울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서울시장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 시장과 윤 시장은 이날 오후 7월 열리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서울시 제공)

현 국회의원 '쑥' 빠져나가

변호사·시민단체도 제외...논란 클 듯

여야 정치권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에 대해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우선, 법 적용 시점은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부터 한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원안에는 1년이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6개월 더 늘려 오는 2016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선'에 다 걸기 해야 하는 현직 국회의원들은 법 적용에서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놓은 모양이다.

또 시민사회 단체와 변호사 등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두고도 뒤늦게 잡음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장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원칙이 없다. 대기업관계자·변호사·의사·시민단체는 왜 뺐느냐”면서 최근 논스타 측에서 거액의 뒷돈을 쟁권 혐의로 구속된 시민단체 대표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정무위가 법안을 심사하면서 시민단체·정치인의 '제재 예외 활동'이 더 폭넓게 인정되도록 수정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

상급자 제공 격려·포상금은 제외

'금품 수수 금지' 예외 조항 8가지 명시

'김영란법' 제정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법 제정이 몰고올 혁명적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과잉입법 논란'으로 인한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김영란법에는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석상의 여지를 둔 규정이 있다. 실제로 법안 제8조 3항에서는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 조항 8가지를 명시했다. 예외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날 본회의 상정 직전 법사위에서 막판에 관련 내용이 추가 보완됐다. 먼저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위로·격려·포상금은 금지대상이 아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

사비, 선물 등도 허용된다. 다만 허용가액에 대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공직자 친척이 제공하는 금품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외단체 등이 제공하는 금품도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단체의 구성원이 공직자와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나 경연·추천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갬코 시민위' 강운태 전 시장 출석요구키로

광주시·시민위 시각차

광주시가 3D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한·미합작투자법인 갬코(GAMCO)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시민위원회에서 전직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해 논란이이다.

출석요구 주체 등을 놓고 광주시와 시민위원회간 시각차가 있는 데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불명확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시민운동가, 변호사, 언론인 등 12명으로 갬코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7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 위원회는 갬코사건에 대한 서류조사와 공무원 등 관계자 의견 청취, 현장확인 등을 거쳐 진실을 규명하고 배서 등도 발간하기로 했다. 특히 조사 뒤 배서 등 위법이나 과실 등이 드러나면 고발과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는 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시민위원회는 최근에는 회의를 열어 강운태 전 시장과 그의 아들, 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 9명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위원은 윤장현 시장을 만나

광주시 명의로 출석요구 공문서 발송을 요구했으며, 윤 시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시장이 자신의 명의로 전 광주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을 경우 자칫 전·현직 시장간 갈등은 물론 지역 사회의 분열로도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갬코 시민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광주시장 명의로 아닌 광주시 명의로 출석요구 공문을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광주시에서 시민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공문 주체도 광주시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윤 시장이)머뭇거리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는 시장의 지침에 따라 이뤄졌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과거 사규명위원회 등도 위원회 명의로 출석요구를 한 사례가 있는 만큼 갬코 위원회 명의로 출석요구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민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놓고 강 전 시장의 출석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위한 사전 여론 형성 단계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박진표기자 lucky@

4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月 20만2600원 지급

65세 이상 소득하위 70%...463만7000명 혜택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은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매달 최고 20만2600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애초 주려고 잠정 계획했던 액수보다는 1000원이 적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26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법에 따라 201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기준연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매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지난해 9월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4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반영해 2015년도 기준연금액을 월 20만3600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나온 통계

청의 최종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3%로 전망치(1.8%)보다 낮았다. 1999년(0.8%)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이처럼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애초 월 최고 20만3600원을 지급하던 기초연금금액을 1000원 줄여 월 20만2600원으로 낮췄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2014년 447만명에서 463만 7000명으로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밝은광주안과 의원

진료내용

라식 라섹 ICL SMILE

LASIK LASEK 안내렌즈삽입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편을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운암동 방면
밝은광주안과 의원

2015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07기)	광주교육대학교(117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2015. 3. 6(금) 09:10 (초급반) -금요일 오후반:2015. 3. 6(금) 14: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2015. 3. 7(토) 09:10 (중급반)	-월요일 오후반:2015. 3. 2(월) 14:10 (중급반) -월, 목, 아간반:2015. 3. 2(월) 19:00 (고급반) -목요일 오전반:2015. 3. 5(목) 14: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2015. 3. 7(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5. 1. 23(금)~3. 7(토)	2015. 1. 23(금)~3. 7(토)
수업기간	2015. 3. 6(금)~2015. 8. 15(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5. 3. 2(월)~2015. 8. 15(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아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교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비특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교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비특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말하는 법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춤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실 분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진학 문의하시든 자세한 안내를 우선하여 드립니다.